

■ 보도자료 ■

- ◆ 수신 : 각 언론사 출판담당 기자님
- ◆ 발신 : 샐럿데출판문화대상 심사위원회
- ◆ 제목 : 제6회 샐럿데출판문화대상 수상자 발표

1. 언론문화 창달에 진력하시는 귀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2. 창립 이래 ‘학술 진흥’과 ‘문화와 예술이 풍요로운 사회’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**롯데장학재단**(이사장 천영우)에서는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체 상금 2억 500만 원 규모의 **제6회 샐럿데출판문화대상**을 공모한 바 있습니다. 공모 마감 결과 153개 출판사에서 모두 500여 종의 우수도서가 응모하여 선의의 경쟁을 벌였습니다.
3. 롯데장학재단이 위촉한 5인 심사위원회에서는 응모도서를 대상으로 15일 동안 진행된 엄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 <첨부>와 같이 영광의 수상도서와 수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.
4. 특히, 이번 제6회 롯데출판문화대상에서는 상패와 상금 5천만 원(저작자와 출판사 각 2천5백만 원)이 수여되는 대상(大賞)에 선정된 한양대 남영 교수의 『**휘어진 시대**(전 3권)』(공리출판)는 “과학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21세기를 관통하면서 과학문해력은 과학지식뿐만 아니라 과학의 역사에 대한 이해로 시작된다는 점에서, 과학사에서 가장 숨 막히면서도 이해하기 힘든 양자역학의 태동기를 소설처럼 흥미진진하게 풀어낸 작품”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. 과학과 친하지 않은 독자들도 이 책을 읽다 보면 20세기 현대사의 중요한 지점을 함께 여행하면서 과학의 세계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 따라서 과학문해력은 지식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값진 저작이라고 하겠습니다.
5. 그밖에 상패와 상금 2천만 원(저작자와 출판사 각 1천만 원)이 수여되는 본상에는 일반 및 번역, 어린이 분야에 걸쳐 모두 7종의 도서가 선정되었으며, 자세한 내역은 <첨부>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6. 또한 상패와 5백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공로상 수상자들[출판외길 부문 **고흥식**(한국출판인회의 사무국장), 해외번역 부문 **최미경**(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교수), 언론 부문 **고두현**(한국경제신문 문화에디터)]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.
7. 샐럿데출판문화대상을 주최한 롯데장학재단 천영우 이사장은 이번 제6회 행사를 통해 “우리 국민의 정신 문화를 선양하는 출판인과 저작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, 샐럿데출판문화대상이 우리 출판문화와 산업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”이라고 말했습니다. 아울러 심사위원장 김기태 교수(세명대)는 “올해 응모한 책들만 모아놓아도 우리 출판문화의 깊이와 넓이를 확인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우수한 책들이 많아서 즐거웠으며, 어려운 시기에도 묵묵히 좋은 책 만들기애 앞장서는 출판인과 저작자 여러분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”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
8. 시상식은 오는 **11월 28일(화) 오후 2시** 파주출판도시에 있는 **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대회의실**에서 열릴 예정입니다.

<첨부1> 수상도서 목록 및 수상자/심사위원 명단

<첨부2> 심사평 및 공격사항

<별첨> 대상 수상도서 관련 사진파일

- ♣ 행사 관련 문의 : 02) 726-4581 (롯데장학재단)
- ♣ 심사 관련 문의 : 김기태 교수 (손전화 010-8885-3133)

<첨부1> 제6회 샬롯데출판문화대상 수상도서 및 수상자/심사위원 명단

1. 대상(大賞) 도서 : 상금 5천만 원 (저·역자 2천5백만 원, 출판사 2천5백만 원)

연번	도서 제목	저자	출판사	초판 발행일	권수	비고
1	휘어진 시대	남 영	공리출판	2023.04.12.	3	일반

2. 본상(本賞) 도서 : 상금 각 2천만 원 (저·역자 1천만 원, 출판사 1천만 원)

연번	도서 제목	저·역자	출판사	초판 발행일	권수	비고
1	거대도시 서울 철도	전현우	워크룸프레스	2020.07.01.	1	일반
2	하이데거 극장	고명섭	한길사	2022.08.30.	2	일반
3	삼순이-시대가 만들고 역사가 잊은 이름	정찬일	책과함께	2019.09.16.	1	일반
4	한국거미도감	김주필	우물이있는집	2023.04.30.	1	일반
5	김수영, 시로 쓴 자서전	김응교	(주)도서출판 삼인	2021.12.31.	1	일반
6	옥춘당	글·그림 고정순	길벗어린이(주)	2023.04.20.	1	어린이
7	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	마르셀 프루스트 김희영 옮김	(주)민음사	2021.09.25.	13	번역

3. 공로상 수상자 : 상금 각 5백만 원

연번	분야	수상자 명	소속 및 직위	추천기관	비고
1	출판외길 부문	고흥식	한국출판인회의 사무국장	심사위원회	
2	해외번역 부문	최미경	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교수	한국문학번역원	
3	언론 부문	고두현	한국경제신문 문화에디터	심사위원회	

♣ 제6회 샬롯데출판문화대상 심사위원회

심사위원장	김기태	세명대학교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/출판평론가
심사위원	김별아	소설가/강원문화재단 이사장
	이정모	작가/전 국립과천과학관 관장
	장동석	(재)출판도시문화재단 사무처장/출판평론가
	표정훈	작가/출판평론가

〈첨부2〉 심사평 및 공적사항

대상 : 남영 지음, 『휘어진 시대』(전 3권), 궁리출판

21세기는 과학의 시대다. 과학 문해력은 과학지식뿐만 아니라 과학의 역사에 대한 이해로 시작된다. 과학사에서 가장 숨 막히면서도 이해하기 힘든 양자역학의 태동기를 소설처럼 흥미진진하게 풀어낸 작품이다. 과학과 친하지 않은 독자들도 이 책을 읽다 보면 20세기 현대사의 중요한 지점을 함께 여행하면서 과학의 세계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. 이 책은 과학 문해력은 지식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려준다.

본상 : 전현우 지음, 『거대도시 서울 철도』, 워크룸프레스

“미친 듯이 집요한 탐구의 결정체” 한 인터넷서점에서 발견한 이 책에 대한 한 줄 평이다. 저자는 ‘방대한’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자료들을 모아 전국으로 뻗은 철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. 단지 어디서 출발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, 한국 철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은 물론 정부의 역할 등 사회적 함의까지 정리한다. 자료적 성격이 강하지만, 철도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기후위기 등의 이슈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집 이상의 가치를 획득하고 있는 저작이다.

본상 : 고명섭 지음, 『하이데거 극장』(전 2권), 한길사

이 책은 서양철학·사상사라는 배경을 적절히 배치한 하이데거 철학·텍스트 연구·해설서다. 또한 이 책은 하이데거를 중심으로 한 20세기 지성사다. 제자이자 연인 한나 아렌트, 스승이었으나 지적으로 결별한 후설, 같은 대학에 재직한 신학자 루돌프 볼트만, 철학자 카시러, 야스퍼스, 마르쿠제, 가다머, 장 보프레, 사르트르, 한스 요나스, 시인 파울 쉘란 등등. 이 책은 하이데거 전기, 하이데거 읽기, 하이데거 시대, 요컨대 삶과 텍스트와 시대가 치밀하게 교직된 책이다. 단연 노작(勞作)이자 역작(力作)이다.

본상 : 정찬일 지음, 『삼순이_시대가 만들고 역사가 잊은 이름』, 책과함께

이 책은, 거대사의 공백을 메우는 미시사가 생활사를 넘어 구체적인 삶에 다다른 결과물이다. 식모, 버스 안내양, 공순이-개발과 성장의 시기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희생하고 헌신한 ‘삼순이’는 직업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의미 있음을, 자료와 인터뷰를 넘나들며 입체적으로 그려낸 저자의 노고와 애정 어린 시선이 돋보인다.

본상 : 김주필 지음, 『한국거미도감』, 우물이있는집

한국 거미 연구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김주필 박사가 평생의 연구를 토대로 펴낸 도감이다. 거미는 곤충이나 꽃처럼 대중적 인기가 높지 않아서인지 책은 화려하지 않지만 내용은 그 어떤 도감보다도 충실하다. 950여 종의 거미를 최신 분류 체계에 따라 정리하였으며, 거미의 생태와 진화계통을 명확히 밝혔다. 각 거미목의 검색표는 거미 분류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어 일반 독자에게도 유용하다.

본상 : 김응교 지음, 『김수영, 시로 쓴 자서전』, 삼인출판사

이 책은 시를 통해 시인의 삶과 역사를 훑아보는 방식으로 시를 쓰는 사람들이 ‘-가(家)’가 아닌 ‘-인(人)’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확연히 드러내는 역작이다. 운동주에서 백석을 거쳐 김수영에 닿은 저자의 시선은 연구자의 냉정과 시인의 열정을 동시에 품은 채로, 김수영이 시로 살고 시를 살았음을 집요한 추적과 추앙으로 웅변한다.

본상 : 고정순 글·그림, 『옥춘당』, 길벗어린이

삶은 유한하다. 유한한 삶이 행복으로 가득하면 좋으련만, 그 안은 희락(喜樂)은 잠시뿐 간난신고(艱難辛苦)로 가득하다. 이 책은 유한한 삶의 온갖 간난신고, 그림에도 아름다운 시절이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

준다. 『옥춘당』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시절의 이유는 단 하나, 바로 사랑이다. 사랑은 세상의 모든 관계를 창조해내고, 그 관계의 확장은 곧 우리 삶의 자양분이 된다. 하여 세상은 살만한 곳이며, 간난신고 속에서 희락이 있음을 역설한다. 사탕 한 알에 담긴 세계를 담백하게 그려낸 이채로운 작품이다.

본상 : 마르셀 프루스트/김희영 옮김, 『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』(전 13권), 민음사

김희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는 10년에 걸친 번역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. “길고 난해한 프루스트 문장을 최대한 존중해 텍스트의 미세한 떨림을 살리는 데 중점을 뒀고 독자의 이해와 작품의 올바른 수용을 위해 최대한 많은 주석 작업을 해 문화적, 예술적 차이를 극복하려 했다.” T. S. 엘리엇은 『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』와 제임스 조이스의 『율리시스』를 20세기 2대 걸작으로 꼽으며 “이들을 읽지 않고 문학을 논할 수 없다”고 했다. 우리말 번역본을 바탕으로 문학을 논할 수 있게 되었다.

공로상_출판외길 부문 : 고흥식 (한국출판인회의 사무국장)

1978년 6월 대한출판문화협회에 입사한 이래 사무국장을 거쳐 2009년 6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출판인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출판문화 진흥 및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운영 등에 크게 기여했다. 특히, 지난 45년 동안 우리나라 출판계를 사실상 대표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출판계 및 출판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히 헌신해 오으로써 우리 출판문화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매우 크다.

공로상_해외번역 부문 : 최미경 (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교수)

프랑스어권을 대표하는 번역가로서 공역자 장 노엘 주떼(Jean Noel Juttet)와 함께 황석영 작가의 『손님』, 『심청 연꽃의 길』, 『바리데기』, 『해질 무렵』, 『수인』, 이승우 작가의 『오래된 일기』, 『욕조가 놓인 방』, 김언수 작가의 『잡』 등 한국을 대표하는 많은 문학작품을 프랑스에 소개했다. 특히, 최미경 교수가 번역한 작품으로 황석영의 『해질 무렵』이 2018년에 프랑스에서 출간된 아시아 현대문학 작품에 수여하는 에밀 기메 아시아 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문학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기여했다. 나아가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불전공 교수로 통역과 번역을 강의하는 한편,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에서 강의 하면서 후학 양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.

공로상_언론 부문 : 고두현 (한국경제신문 문화에디터)

1988년 한국경제신문사 편집국 기자로 입사한 이래 1995년부터 문학과 출판 담당기자, 문화부장, 논설위원을 거쳐 문화에디터로 근무하면서 28년째 문학 출판 관련 기사 및 칼럼 게재를 통해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했다. 특히, ‘독서경영’이라는 용어를 신문에 처음 소개하며 경제신문의 특성을 살린 ‘독서경영 전도사’ 역할을 담당했다. 아울러 KBS, MBC, SBS 라디오를 통해 ‘책 읽어주는 남자’로 20년 간 방송을 진행하는 한편, 『독서가 행복한 회사』, 『시 읽는 CEO』, 『미래 10년 독서』, 『교양의 품격』, 『생각의 품격』, 『경영의 품격』 등 독서경영 관련 저서를 활발히 출간함으로써 기업문화 진작에 기여해 왔다. 그밖에 시인(199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당선)으로 활동하며 문학과 출판의 가교 역할까지 담당함으로써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매우 크다.